

농어촌공사, 중남미·아프리카에 K-농업 DNA 심는다

3년 걸쳐 KOICA 연수 사업 진행
콜롬비아 농업·축산 공무원 초빙
농축산물 추적시스템 역량 강화 연수
과테말라·볼리비아·우간다 등도 초청

한국농어촌공사가 중남미·아프리카 국가들을 대상으로 농업기술 전파에 주력하고 있다. 공사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 글로벌 연수 사업의 시행기관으로, 올해 과테말라·볼리비아·우간다 관계자들을 차례로 국내에 초청해 교육·연수를 실시했다. 이달에는 콜롬비아 대상의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농어촌공사는 10월 11~24일 기간 콜롬비아 농업·축산 분야 공무원 18명을 초빙했다. 콜롬비아 국가 및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축산물 추적시스템 역량 강화' 1차 연도(첫회) 연수를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1차 연도 연수는 콜롬비아 중간관리자를 대상으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과 정책 개발 역량 강화에 중점을 뒀다. 연수생들은 ▲한국의 농축산업 발전사 ▲농산물 우수관리(GAP) 인증 및 이력추적제도 ▲축산물 이력제 및 등급제 ▲수입축산물 이력 관리 ▲해협(HACCP) 위생관리 체계 등 전문 강의를 접했다.

또 농림축산검역본부와 축산물품질평가원, 서울시농수산물공사 등 관련 기



이달 중하순 한국을 찾은 콜롬비아 농업·축산 담당 공무원들.

/한국농어촌공사

관을 방문해 한국의 이력관리제도와 운영 체계를 확인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KOICA 글로벌 연수 사업으로 2028년까지 3개년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공사는 2027년 2차 연도 연수에서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이력 관리 시스템 설계·구현 역량 향상을 지원한다. 이어 2028년에는 현지 적용을 위한 정책 모델과 신규 사업 제안서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영훈 한국농어촌공사 인재개발원장은 "후속 연수에서도 디지털 기술 활용과 현지 적용 역량을 단계적으로 높여 콜롬비아의 농축산물 이력 관리체계 고도화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공사는 9월27일~10월10일 2주간 우간다 농촌진흥청(NARO)과 지방정부 실무급 공무원 18명을 초청했다. 우간다 역시 올해부터 2028년까지 매년 한 차례 초청연수를 진행한다.

올해는 현장 실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한국의 기술을 우간다 현지에 적용할 수 있도록 농약 안전관리와 병해충 조사, 수출입 검역 등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했다.

참가자들은 ▲올바른 농약사용 방법과 안전 사용 기준 ▲식물 병해충 방제 기술 ▲시장 접근성 향상을 위한 수출 식물검역 실무 등을 익혔다. 이들은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기술개발센터를 찾아 병

해충 동정·예찰과 역학조사 등 실제 검역 업무 절차와 관련 기술을 접했다.

또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서울 시농수산물공사 등을 방문해 한국의 농산물 안전·품질관리 현장을 둘러봤다. 연수에 참가한 우간다 농진청 관계자는 "이번 과정을 통해 한국의 체계적인 농산물 안전관리 시스템과 기술을 배웠다. 이를 우간다 현지에 접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며 소감을 전했다.

지난 9월 초중순에는 볼리비아 환경수자원부 소속 공무원과 관개 분야 관리자 11명을 초청했다. 공사는 볼리비아 관계자들이 한국의 농업용수 관리 경험·기술을 익히고, 이를 자국 관개시설 운영과 정책·사업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짰다.

볼리비아의 쌀 재배면적은 증가 추세에 있으나 생산량은 기후 여건 등에 따라 큰 변동 폭을 나타내고 있다. 이 나라의 쌀 생산량은 2023년 70만 톤(t)에서 2024년엔 가뭄 등 기후재해로 43만t까지 감소했다. 2025년도 생산량은 60만t 수준을 보였다.

연수는 농업용수 관리 실무와 정책·사업 개발 역량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프로그램은 ▲한국의 농업용수 및 기후변화 ▲한국의 관개농업 및 농업기반시설 운영관리 ▲지속가능한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한국의 농업기술 ▲액션플랜(AP) 개발 등 4개 과정이었다.

지난 7월에는 과테말라 산림청(INAB) 소속 공무원 15명이 한국을 찾았다. 올해가 3개년차 연수로, 2024년부터 이어온 '과테말라 기후변화 대응 역량 강화' 연수가 마무리됐다. 공사는 지난 3년간 산림청 공무원 포함 48명을 초청했다.

세계산림감시(GFW)의 과테말라 자료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25년까지 농업을 위한 개간으로 약 160만 헥타르(ha), 산불로 약 14만ha에서 나무가 사라졌다. 서울시 면적의 29배에 달하는 규모다.

한국은 과테말라의 산림 보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1·2차 연수에서 참가자들은 고령지농업연구소, 국립산림과학원, 산림기술경영연구소 등을 방문해 한국의 산림복원 정책과 기술을 학습했다. 또 대관령 양떼목장과 영양 산골형제농장 등 농업과 임업을 결합한 현장을 찾아 복합 농림업 모델을 살펴봤다.

올해 진행된 3차 연수는 과테말라 공무원들이 현지 정책과 사업을 직접 설계할 수 있도록 '사업제안서(PCP)' 작성에 중점을 뒀다. 연수 참가자들은 강원 고성 산불피해복구 현장과 용문양묘사업소, 대관령 특수조림지를 방문해 생태복원·조림 기술을 익혔다. 이번테기 고령지 채소단지과 삼양목장에서는 농업과 임업을 연계한 복합 농림업 모델을 학습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metro

KTR, '클린화장품' 객관적 품질 기준 마련

'오송 화장품 뷰티산업 엑스포'서
8개사 14개 제품에 1호 인증서 수여
유해물질·친환경 용기 등 엄격 심사

국내 시험기관 최초로 '클린화장품'에 대한 객관적인 품질 기준이 마련돼 첫 인증서가 수여됐다. 글로벌 시장에서 K-뷰티의 신뢰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은 지난 23일 '2026 오송 화장품 뷰티산업 엑스포' 현장에서 클린화장품 단체표준 인증 수여식을 열고, 국내 화장품 제조8개사의 14개 제품에 1호 인증서를 수여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인증을 획득한 기업과 제품은 ▲(주)기린화장품(바디제품, 바디클렌저, 샴푸) ▲레스케이미(주)(로션, 크림) ▲(주)메디아크(로션, 크림) ▲(주)바디아씨앤디



KTR 정승호 부원장(왼쪽 다섯번째)이 클린화장품 단체표준 인증 수여 기업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KTR

랩(폼클렌저) ▲(주)에버바이오(화장수, 크림) ▲(주)온당(샴푸바) ▲제이앤지코스메틱스(화장수) ▲(주)파에노(로션, 폼클렌저) 등 총 8개사 14개 제품이다.

이번 인증은 KTR이 국내 시험기관 최초로 제정한 클린화장품 단체표준 'SPS-M KTR 0002-7670:2025'에 따른 것이다. 클린화장품이란 '인체 유해 성분 배제(Safety)'와 '지속 가능한 환경 보호(Sustainability)'라는 두 가지 핵심 가치를 객관적인 품질 기준으로 입증한 화장품을

뜻한다. 단체표준(SPS)은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전문 단체나 기업이 공공안전, 소비자 보호, 품질 향상 등을 위해 제정·운영하는 민간 임의 인증제도로, 국가표준(KS)에 없는 신기술이나 특화 품목의 품질 보증 역할을 한다.

KTR은 이번 단체표준에 따라 인체와 환경에 유해한 물질을 최소화하고 친환경 화장품 용기를 사용한 제품들을 엄격히 심사해 인증서를 발급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마감임박' 임대아파트 허위·과장광고… 시행사 4곳 적발

공정위, 시정명령·공표명령 부과

관할 관청의 인·허가도 받지 않은 채 민간임대아파트 예비 임차인을 모집하고, 실제 모집률이 턱없이 낮음에도 '마감임박'이라며 소비자를 속인 시행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26일 민간임대아파트 건설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인·허가)을 받지 않았음에도 이를 숨긴 채 회원을 모집하고 허위·과장 광고를 한 4개 사업 시행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공표

명령 등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곳은 드림하우징(드림시티), 베네치아(백산블루밍), 해성산업개발(메르디앙 더 퍼스트), 에이엠디(일산 더 센트럴, 대우엘크루) 등 4개사다.

이들 업체는 2024년 11월부터 예비 임차인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인·허가를 취득한 것처럼 광고했다. 이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방해하는 기만적인 광고(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특히 드림하우징, 베네치아, 해성산업개발 등 3개사는 예상 세대수 대비 회원 모집률이 28.4%~33.6%에 불과함에도 '마감임박'이라는 문구를 사용해 계약을 서두르도록 유도한 거짓·과장 광고 혐의도 함께 받았다.

공정위는 이들 4개사에 시정명령(통지명령 포함)과 공표명령을 내렸다. 다만,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소비자들이 납부한 회비에서 충당돼 오히려 피해자들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과징금은 면제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폴리텍대, 부산 잡 페스티벌서 체험관 운영

반도체, 휴머노이드 등 12개 부스 구성

한국폴리텍대학이 26일 '2026 KB굿잡 부산 잡 페스티벌'에 공동주관 기관으로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동남권 청년 취업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부산 벡스코 제1 전시장에서 열린 이번 박람회에는 직업계고 학생과 전역예정 병영, 대학생 등 구직자 1만여 명이 다녀갔다.

올해는 부산·울산·창원 지역의 AI, 미래모빌리티, 바이오헬스, 해양, 금융 등 신산업 분야 200여 개 우수기업이 참가했다. 현장에서는 인사담당자와의 대면 면

접 및 현장 입사지원 등이 진행됐다. 구직자를 위한 취업컨설팅, MBTI별 면접 전략 등 부대행사도 마련됐다.

폴리텍대는 총 12개 부스의 직업체험관을 구성했다. ▲반도체 생산 현장 체험 ▲VR을 통한 산업안전 체험 ▲금형 도장 DIY ▲휴머노이드 및 무인자율주행 로봇 제어 등을 선보였다.

특히 체험관에는 실제 구동되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행사장을 누비며 관람객을 맞아, 피지컬 AI 기술을 가까이서 접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청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교육과정 소개 및 상담도 함께 진행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한전, 소상공인 상생협력 공로 인정 받아

'소상공인 대회'서 행안부 장관상

한국전력(이하 한전)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상생협력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한전은 지난 23일 열린 '2026년 소상공인 대회'에서 공기업 중 유일하게 기관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상은 한전이 국민에게 전력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표 공기업으로서,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영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온 성과를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동안 한전은 코로나19 팬데믹과 에너지비용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온 소상공인들을 위해 다양한 전기요금 부담 완화 정책을 펼쳐왔다. 특히 정부와 협력



한국전력 이진화 고객센터실장(왼쪽에서 두 번째)이 지난 23일 열린 '2026년 소상공인 대회'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한 뒤 기념 촬영하고 있다.

/한전

해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사업을 지원했으며, 2023년부터는 냉난방 수요가 집중되는 하동절기에 전기요금을 최대 6개월까지 나누어 납부할 수 있는 '분할납부 제도'를 확대해 소상공인의 현장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줬다.

/세종=한용수 기자